

93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 방언반 학술답사 보고서
- 문헌반 학술답사 보고서

구비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1. 답사지역 및 조편성

구비문학반은 1993. 5.5(수)-5.8(토)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설화, 민요, 무가 등을 조사, 채록하였다. 답사에 앞서 가평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1993. 4. 28에 서대석 선생님께서부터 답사준비 및 조사방법에 관해 강의를 들었다. 참가 인원은 지도교수 서대석 선생님을 비롯하여 총 23명이며 아래와 같이 조를 편성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제 1 조 : 서대석(지도교수), 신미경, 이세신, 손태도(석사과정), 구분현, 조희경(학사과정)

제 2 조 : 이인경, 이지하(박사과정), 최현재(석사과정), 배수찬, 박종범, 류하영(학사과정)

제 3 조 : 정충권(박사과정), 정인숙, 장시광(석사과정), 이선재, 한길연(학사과정)

제 4 조 : 류준필, 김탁환(박사과정), 김준범, 이지영, 윤경은, 서정민(학사과정)

2. 조별 활동 내용 및 자체 평가회

각조별로 5.5-5.8까지 조사활동을 벌여 아래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 1 조 : 가평읍 일대 조사, 설화 10편, 민요 20여 편 채록

제 2 조 : 상면, 하면 일대 조사,

설화 20여편, 민요 10편 채록

제 3 조 : 외서면, 가평읍 일대 조사, 설화 26편, 민요 7편 채록

제 4 조 : 설악면 일대 조사, 설화 23편, 민요 11편 채록

5.7 오후에 각조가 청평댐 부근에 모여 저녁 식사를 겸하면서 자체평가회를 가져 각조별 활동과 각자의 소감을 말하였는데, 특히 각조별로 행한 정열적인 조사활동이 돋보였다.

5.8. 아침식사 후 간단한 기념 촬영을 하고 오전 11시 경에 서울로 향했다.

3.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5.13. 16시 1동 203호에서 학과 주관으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을 가졌다. 구비문학반은 신미경(석사과정)이 조사활동을 보고했다.

* 이 지면을 빌어 바쁜 가운데서도 귀한 자료를 구연해 주신 제보자분들과 가평군청, 가평 문화원, 노인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 지면 관계상 채록한 자료 중 일부만을 수록한다.

1) 가평군 가평읍

<회다지 소리">

조사 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 1리 마을회관.

조사 날짜: 1993. 5. 7.

선창자: 박양철씨(남, 66세; 하색
1리 이장)

조사자: 서대석 교수님, 신미경,
손태도, 이세신, 구분현, 조희경.

하색 1리 마을회관에서 30명 정
도의 주민이 동원되어 인공적으로 이
뤄졌다. 선창자는 사실보다 노래 숨

씨를 녹음해 가는 것으로 오해해서
<<가평군지>>를 펼쳐 놓고 거기에
있는 신영범씨(현재 가평 문화원장)
가 정리해둔 문학적 사실을 적당히
자기화해서 부르기 시작했다. 선창자
가 원래 자기가 하던 사실을 하지 않
고 <<가평군지>>를 펼쳐 놓고 이리
저리 사실을 제멋추어 25분 가까이
노래를 하자 후렴을 받던 사람들이
“이장님의 평소 실력의 50%도 안된
다.”, “이병철이 나오는 것을 해달라.”
는 등의 불평이 터져 나왔다. 이에 선
창자는 원래 자기가 하던 사실로 다
시 노래를 하게 된다. 여기서는 다시
한 노래만 실는다.

<선창> <후렴>
에 헤 호오리 더얼쿵 에 헤 호오리 더얼쿵
.....

한 발 두 뺨 덜구대물
잘 단다고 먼저를 말고
다만 눈치로 동안을 갈라
여기 제신 분은 듣기도 좋게
우리 한 번 밟아 봄시다
꽃진다 있진다 설위마라
명춘 삼 월이 돌아올 오면
꽃은 피어 만발을 하고
우리같은 초로인생은
사람 눈에 나비로다
이 길을 한 번 가게를 되면
장승으로다 울을 삼고
청토 황토로 보단을 삼고
삭침을 돌워 베고

<선창> <후렴>
..... 에 헤 호오리 더얼쿵
여보소 역군님네
눈 위에다가 년짓 들어
못단다고 나중을 말며
옆 사람 발등을 찰치치 말고
먼 데 사람은 듣기도 좋게
명사 십 리 해당화야
동삼 석달을 꼭 죽었다가
너는 다시 갱생하야
있는 피어서 푸르질 때
풀 끝에 이슬이요
그 뒤라도 잘못되어
천지로다 집을 삼고
두견 접동 벼을 삼고
멧장으로다 이불을 덮고
자는 듯이 누웠으니

1) 회를 넣고 봉분을 다지며 부르는 노래. 봉분을 만들 때 회를 흙과 섞어 다지는
것은 봉분을 단단하게 해서 빗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살은 썩어서 물이 되고
 천은 칠베이 흙토를 지내이
 산궁전에 찾아를 가서
 호천망극 애고 곡 하니
 우느니 우는 줄 아나
 사후에 만반진수
 살았을 적에 먹고두 쓰고
 두마치가 힘이 든데

주근주근 받아를 주소
 예혜 오호리 더얼콩 예혜 오호리 더얼콩
 못면할 손 죽음이라
 요순우탐문무주공
 어지도다 진시황은
 진인옥지 수호하고
 삼신산 불로초로
 여산 황룡에 고혼이 되고
 야만강개에 자사하고
 약명 몰라 죽었으며
 삼성그룹에 이병철이가 (발굴음 소리 크짐)
 하물며 초로인생
 서산에 지는 해를
 월출동령 듣는 달아 (잘한다)
 한없이 놀다가자
 한 움개가 또 있으니
 (웃음 박수)

뼈는 썩어 진토가 되고
 사는 친구가 다정타고
 만반진수를 차려 놓고
 왔으니 왔는 줄 아나
 이런 일 생각하면
 붙여생전에 일배주로다
 거덜거리고도 놀아를 보자
 아까하던 세마치로다²⁾

검던 머리 백발이요 예혜 오호리 더얼콩
 천황 지황 인황 후에
 성덕 없어서 봉하시며
 만리장성 쌓은 후에
 군신지의 수락 후에
 장생불사를 하렸건만
 독행 천 리 판공님도
 화타나 편작이가
 황개 석승의돈이나
 재산이 없어서 죽었겠나
 말 다 해 무엇하나
 양류사로다 잡아를 매고
 계수에 머물러라
 여보소 역군님들
 잠깐 쉬어 다음권하세 이이야아 오호허이

2) 가평군 외서면

<제보자 : 이연우(남79세)>
 <채록장소 :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노인회관>
 <채록일 및 조사자 : 1993년 5월 6일 정충권, 정인숙, 이선재, 장시광, 한길연>

청평리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몇

제보자들에게서 설화를 채록할 수 있었다. 그 중 이연우씨는 상천 3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온 토박이로서, 정규 교육은 못받은 듯했다. 하지만 한문 풀이답을 많이 알고 있었고,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편이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청하니 선뜻 응해주었다.

2) 가평군지를 보며 소리를 할 때 상여 소리로부터해서 회다지 세마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끝내었다.

<임어 보은담>

예전에는, 시방은 학생이라고 그러지 공부하는 사람을 예전엔 학동이라고 그래 학동. 한 학동이 이제 공부를 선생이 저만큼 있으니까 점심밥을 싸가지고 땡겼어. 싸 가지고 땡기는데 가는 도중에 연못이 있어 연못. 연못에서 큰 잉어가 나와 빙빙 돌아. 도니까 저 놈 밥을 좀 덜어줘야겠다 자기 싸 가지고 온 점심밥을.

한 반 이렇게 덜어서 주고 그러니까 그 놈이 다 먹어. 덜어준 걸 다 좇어먹고. 다 먹은 뒤에 가고 공부허러 가고 그래. 날마다 가다 보면 꼭 그 시간에 나와서 잉어가 돌아댕겨. 그러니깐 삼년을 맥였다 이거야 삼년을. 삼년을 공부를 허다 보니까 장개를 가게 됐단 말야 장개를. 장개를 어디로 가느냐 허면은 강 건너로 가게 됐어. 장개 가면은 사흘은 그 잉어밥을 못 준단 말여. 그니깐 가지고 가는 밥을 자기는 굶어도 다 쏟아줬단 말여. 쏟아주면서 허는 소리가 내가 삼년을 밥을 맥이다 사흘 동안은 너 밥을 못 주니까 이걸 먹고서 사흘 동안은 굶어라 이런 얘기여. 다 쏟아 주니까 이놈이 다 먹어. 사람 저 먹올겨 다 좇어 먹더니. 에 이놈이 펄쩍 뛰더니. 연못 옆에는 대개 백사장이거든. 나오더니만 꼬리로 넘다 백사장에 가서 굶는데 글을 지어. 그래 뭐라고 허느냐 허면은 암하에 불패주

다섯 자를 쓴단 말야. 바위암자 아래하자 아닐불 매질패 배주(岩下不掛舟). 바위 아래 배를 매지 마라 그거지. 또 한자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 허

면 두상에 물세유 그러거던. 머리두자 위상자 말물자 씻을세 지름유자(頭上. 勿洗油). 그러면 머리 우에 지름을 씻지 말라는 얘기여. 또 뭘 쓰느냐 허면은 일두 미삼승. 한일 말두 쌀미자 석삼자 되승자(一斗米三升). 한 말에 쌀이 서 되라는 뜻이여. 그렇게 허구선이놈이 펄쩍 뛰더니 연못으로 들어갔단 말야 연못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인제 집에 와서 설라모네 이제 떡 허니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앞서 가는 배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시냇길이더라 이런 이거여. 조금 앞서 가는데. 그런데 그 뱃대기 꼭 바우가 어우하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깐 그 신랑이 아 암하에 불패주라고 헌 것이 뇌에서 생겼단 말여 배대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니깐 아 우리 배는 저 아래 내려 대시오. 뱃사공들이 그 배가 딱 그 원 배대는 그 턱으로 갖다 대자 그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은 나가고 이 나중에 간 사람이 가서 여기 조금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됐는데 대자 그 바우가 텃석 내려왔는거야. 그러니깐 죽었지 이젠 거기만 땡으면 죽는거야. 그러니깐 야 이상허다. 삼년을 내가 잉어를 밥을 줬더니 이런 무어사기를 나를 써 줬구나.

그래 인제 자신 생각을 허구서 그날 저녁에 가서 초례를 낮에 가서 초례 지내고 절을 허구. 시방은 결혼식장 그거여. 초례를 지내고서 저녁에 신방을 떡 들어갔는데. 요즘엔 시방도 병풍이 있지만 병풍. 병풍을 뺄 둘러싸고 그랬는데 자 옷을 벗어설라네

걸고 갓을 벗어서 말뚝에다 걸으니까 예전에 들지름불이여. 시방은 석유불 가스불 이렇게 들지름불. 아 그 갓을 이렇게 걸다 들지름 등잔을 찢단 말야. 치니깐 들지름 등잔이 머리에 와 뒤집어 썼으니 지름이 머리에 번질 밖에. 그래 그걸 씻을라고 생각을 하고 씻을려고 허다가 두상 물세유. 잉어가 해준 것 암하에 불쾌주가 맞았구, 두상 물세유라는 말이 떠 올랐단 말야. 아 이걸 씻지 말아야 한다. 씻지 않고서 그냥 삭시하고 한방에 이렇게 딱 드러놓는데. 그 잠이 안와. 어느 때나 됐는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병풍 너머로 자객이 넘어온다 말야. 넘어오더니 머리를 쑥만져 보니깐 지름이 손에 묻혀거든. 거 원래 남자는 지름을 안 발라도 돼고 여자가 지름을 발랐겠지 허고서 지름 안 바른 사람을 냅다 찢른 거야. 그런데 이제 신랑은 머리에 지름이 있는데 신랑을 비켜 놓고 삭시를 냅다 목을 찢른 거야. 그리고 이 놈이 신랑 죽인 줄 알고 나갔지요. 나간 뒤에 그 이튿날 아침에 정신 없지 그냥 방에 유혈이 낭자한데 잠와요 신랑이. 그 늦도록 신방에서 나오는 기색이 없으니까 하인을 불러서 아해야 신방에서 내외가 없나 그니까 말하지면 신랑이 차이니 그러니까 상노가 있다 가서 와서 서방님 서방님 허니 대답이 없어 나가서 상전더리 아 서방님 불르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는지 문을 열어 봐라 이거야 말이야. 대답이 없더니 무슨 소리냐. 아 문을 열어 봤더니

비린내가 확 나오고 사람이 기생망생이야 없어. 아주 들어가서 보니까 삭시 목에는 칼에 찢려 있고 신랑은 세상을 모르는 거야. 아 정신이 빠졌어.

아 그래 그렇다는 얘기를 예전에 사또가 원 아네요 시방으로 말하면 군수지. 사또한테다 고소를 했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고소를 하니까 아 둘이 자다 한 놈이 죽었으니까 그 놈이 죽었지 누가 죽였겠느냐 이런 얘기에. 그래서 원이 불러다 가서 너 네 죄를 모르겠느냐 그러니깐 네 제 애기 소원을 한번 들어 주십쇼 그런 얘기에. 뭐 얘기나 예 제가 삼년을 잉어를 점심을 줬는데 처음에 잉어가 씩글이 뭐냐 허면은 암하에 불쾌주 두상 물세유 이걸 써 줬는데 암하에 불쾌주는 배를 이렇게 대놔서 밑으로 댔더니 바우가 떨어졌소 그래 죽을 걸 살았소. 이런 얘기를 허고 두상 물세유라는 것이 내가 갓을 벗어서 걸다가 머리에 지름이 얹쳐진 거를 내 씻지 않았소이다. 그래 아 아뵤든 니가 죽었지 다른 놈이 누가 죽였겠느냐 그러는 거야. 그래 죽었다고 허면 일두 미삼승이라는 마지막 글 다섯자를 풀어 주고서 날 죽이쇼 말이야. 이걸 무슨 소린지 난 모르니깐. 이 다섯자구를 풀어 주고서 죽이쇼. 원이 그거 무슨 소린지 몰라. 자꾸 그냥 연기 허는 거여. 연기를 여러번 허니까 그 원의 딸이 열여섯살 먹은 딸이 있어. 원의 딸이 공부를 잘 허거든. 예전에 여자도 한문 공부 무척 해요. 그 딸이즈 아버지를 가지고 또 연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녁에 즈 아버지더러

아버지 왜 그러냐 아 그 무슨 공산데 아버지 몇 번 연기를 허십니까. 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잉어가. 그 얘기를 다 했는데 들은 맞았는데 일두 미삼승을 풀어 주고야 죽이래는데 이걸 못 풀겠구나. 그러세요 아버지 그럼요 다음 공사에는 아버지 옷을 절 빌려 주세요. 아 니가 빌려 주면 니가 풀겠니. 아 그저 지가 한번 나가 공사를 풀겠습니다. 아 그래 아 그 날짜가 되니깐 너 나가서 풀어봐라 그랬단 말야. 그 옷을 시방 판서 옷 같죠. 그 시방 허는 옷이. 그런데 입고서 떡 나가 앉아서 높은데 인제 원은 앉었고 밑에 죄인은 앉아서 쳐다 보거든. 무신 공사냐 그러거든. 예 그저 소인은 일두 미삼승이라는 그 다섯 글자를 풀어 주고서야 절 죽이시면 한이 없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을 불렀어요. 불르니까 예 그러니까 너 그 아무데 그 정승집의 삭시집의 가서 그 동네의 감칠승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라 이런 얘기가. 감칠승이. 한말 석승에 쌀이 서되면 제가 일곱 되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 제감자 일곱칠자 되승자. 감칠승(減七升)이. 그래 동네에 가서 감칠승이 이 동네에 있느냐 허니까 아 그 머슴놈인데. 그 삭시집 머슴놈인데. 불들어 앉아 가지고 니가 니 죄를 모르겠느냐. 예 과연 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그니까 생전 머슴으로 살겠고 장개를 못 들겠고 그래가지고 신랑을 죽인데는게 죽이고 보니까 삭십니다. 그 삭시가 원의 딸이 풀고 이저 아버지 지더러 뭐라 그냐면 아버지 왜 그러

냐 그니까 저는 시방 규중 처녀로서 타남자한테 시집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는 죄술 망청 남의 남자 얼굴을 상대했는데 어찌 다른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러거든. 아 좋다 말야 그렇다면. 아 그래도 원의 집에 있다가 자취해서 저 집으로 갔어요.

3)가평군 설악면

조사장소 :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경로당

조사날짜 : 1993. 5. 7.

제보자 : 장기주, 남 86세(원승이 띠)

조사자 : 류준필, 김탁환, 김준범, 이지영, 윤경은, 서정민

가평군 가평읍이 고향이며 소학교도 안 나온 노인이나 유충렬전, 삼국지전,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등의 언문소설을 보았다고 했다. 먼저 엄소리에 말발자국이 남아있는 바위 얘기를 물어 보았으나 처음 듣는 소리라 하더니, 조사자가 아기장수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르는 얘기라고 하면서 아는 소리 잘하는 사람 얘기부터 구연하기 시작했다.

<아는 소리 잘하는 사람 얘기>

그전에 아는 소리 잘하는 놈이 있던 말이에요. 그 뭐 아는 소리를 아주 잘해요. 이렇게 만나면 둘이 이렇게 만나도 아는 소리를 잘하구 셋이 만

나도 아는 소리를 잘해. 그러니깐 어떻게 서너 친구가 모였다 그 말이야. 모였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앞으로 쓱 지나가. “자네가 알길 잘하니 저 사람이 뭘 하러 가는지 아니? 알아야?” 하구 물으니까, “아, 그 사람이 뭘 하러가? 그 사람 친환에 약지러 가는 사람이다.” 그말이야. 부모가 병이 나서 약을 지러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 어디 과연 그런가하고 여보여 보 불렀다 그말이야. 그러니까는 왔어, 그사람이. 와서는, “그래, 당신 뭘 하러 가오?” 하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병이 나서서 약을 지러 간다.” 그말이야. “아, 당신이 동쪽에서 왔구라.” “네, 동쪽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정해생이구라.” “네, 정해생이올시다.” (조사자: 정해생요?) 어, 아주 잘 알거든. 그러게 이 사람이 뭐 판데 가서 물어보는 거보담도 그 사람더러 자기 아버지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게 나올 것 같다 그말이야. 그래서, “아, 그렇게 아는게 많으시니까 우리 아버지 병을 좀 고쳐 달라.”고 애길 했거든.

애길 하니까 그 어 하는 말이, “아, 그럼 당신 아버지 병이 어땡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병은 이렇게 우구리지도 못하고 뒤로 제치지도 못하고 뿔뿔한 병이다.” 그말이야. “아, 그게 각궁반장이란 병인데.” 각궁반장이라구 그저 의서에 보니까 있어, 그런 병도. 없는 것도 아니예요. “그래 그런 병인데 어 그걸 그렇게 곤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 곤칠 수 있다구.”

“그래 당신네 집이 개를 질르오?” 하니까 “네, 개도 지릅니다.” “돼지도 지르느냐?” 하니까 “돼지도 지릅니다.” 그말이야.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잡고 개도 한 마리 잡고 다 괴기는 당신들이 먹던지 팔던지 하고 가죽만 남겨 놓으라.” 그말이야. “아, 그럼 가지자구.” 그 사람을 데리구 가는거야. 그래서 두 친구는 거덜맹이(?) 저 사람이 가서 어떻게 병을 곤치냐 하고 구경을 하러 쫓아 가는거야.

그래 쫓아가서 인제 이렇게 저녁, 아마 이맘때가 됐던지. 그러니까 저녁 해 저서 저녁먹고 돼지 잡고 개 잡고 했으니까 고기도 실컷 먹었다 그말이야. 그리구 그 개 가죽하고 돼지 가죽하고 가져오라고 해서 불을 뜨끈뜨끈하게 이제 방에다 때구서는 아, 돼지 가죽을 깔고 개 가죽을 덮고 그 환자를 갖다가 찜질을 했어. 여기다 넓히고서는. 찜질을 해구서는 그 이튿날 아침에 아, 그냥 아프지 않다구 괜찮다구 일어나거든. 아주 잘 곤쳤다 그말이야.

그래 거기서 인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사례금을 얼마 주었다 그말이야. 인제 그래 그걸 가지고 오지. 세 놈이 또 오는 거야.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요만한 걸 뭐 하나 해서 이고 간다 그말이야, 쪼꼬맴게 해서. “그래, 니가 아는 게 잘 하니까 저 할머니 뭘 이고 가시는 줄 아니?” “아, 밤이다, 애.” “밤이야? 그럼 그거 몇 톨인지도 아니?” “암 몇 톨이나, 예순네 톨이다 그게.” “그래, 그럼.”

그래 그 할머니를 불러서, “아 그래

할머니, 이고 가시는 게 뭐니까?”하고 물으니까, “아 이거 외손주네 집엘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어 밤을 몇 톨 주간다고.” “아 그럼 저희가 내기한 게 있는데 어디 좀 시어 볼까요?” 하니까, “아 별 소릴 다 한다.”고 하면서, “시어 볼 테면 시어 보라구.” 이러는데 아 그게 몇 톨이나 하니까 예순네 톨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순네 톨이야, 그게.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천천히 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니가 그 사람이 부지런히 가는데 친환에 약 지러 간다고 했으니 어떻게 친환에 약 지러 가는 줄 알았느냐?” 인제 물어 보는 거야. 물어 보니까, “옛날부터 시속에 이른 말이 부지런히 가면은 친환에 약 지러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 옛날부터. 부모가 병이 나면 천천히 가지 않고 약을 지러 부지런히 가는 법이다. 그래설라드네 나는 속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두 부지런히 가니까 아 친환에 약 지러 가는 걸로 알았다.” 그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동쪽에서 온 거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 동쪽에서 온 건 그 사람이 그날 동풍으로 비가 쪼끔씩 오는데, 가랑비가 쪼끔씩 오는데 동어리만 젖었어.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풍으로 비가 오는데 동어리만 젖었으니까 (일동 웃으니까 따라 웃으며) 아하, 그게 동쪽에서 온 게 아니냐.” 그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상투짜고 대닐 때거든, 그때는. 지금은 뭐 저거다지만. 그 사람이 뭘 꽃았느니 하면 상투를

짜고서 옥동곳을 꽃았어, 거기다. 그래 옥갑에 이른 말이지. 병술년에 옥상투, 그런 말이 있어. 옥상투라구. 병술과 정해년에는 옥상토지. 저, 집 옥자하고 옷 상자하고 흙 토잔데, 괜히 그걸 옥상투라고. “옥동곳을 꽃았으니까 그 사람이 옥동곳을 꽃았기 때문에 정해생인 줄 알았다.” 그말이야.

“그래 그건 그렇구. 그러면 그 사람의 병이 각궁반장이란 병이라고 자네가 했는데 어떻게 개가죽을 깔고 돼지 가죽을 덮으면 날 걸 알았느냐?” 그걸 또 물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 사람 땀뻗한 병이야, 땀뻗한 병이기 때문에 예, 돼지 가죽은 저피요.” 돼지 가죽을 저피라구 그러잖아. 돼지 저자하구 가죽 피자. (조사자: 예) “개가죽은 구피라. (일동 웃음) 땀뻗한 병이니까 굵히고 접히면 낫지 않냐.” 그말이야. (일동 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했다 그런 얘기가.

(조사자: 그 다음에 그럼 밤은 어떻게?) 그래 그 사람이 노인이 이고 간걸 어떻게 밤인줄 알았느냐, “아, 그때 까치가 남달 물고 서쪽으로 건너가더라. 그래 서녘 서 밑에다 나무 목을 하니까 밤 울자다.” 그말이야. 그래 그건 밤인 줄 알았다 그말이야. “그러면 그 예순네 톨은 어떻게 알았느냐?” “아 까치가 날아가는데 팔팔팔팔하고 그 날아갔어. 그러니까 팔팔육십사, 예순 넷이 아니냐.” 그말이야. (일동 웃음) 그렇게 알았다 하는 얘기 그거 한 마디야.

현대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1. 결단식 및 편성

1988년, 1990년, 1991년 그리고 1992학년에 이어 5번째 시도된 현대작가반의 학술답사는 1993년 5월 4일 화요일 17시에 1동 203호에서 예비 모임 및 결단식을 가지고 조편성 및 임무분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번 학술답사의 대상 작가인 이무영의 고향인 충북 음성과 홍명희의 고향인 충북 괴산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다. 현대작가반의 편성,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편성

지도교수 : 오세영, 조남현 선생님

담당조교 : 한상규

참가자 : 박사과정 7명, 석사과정 12명, 학부과정 16명. 김만수, 장수익, 김진옥, 김종욱, 김의수, 권정우, 남기혁(이상 박사과정), 임수만, 김동식, 하회정, 김건우, 이용래, 김윤정, 노승욱, 김미영, 서재길, 박현수, 배개화, 김학균(이상 석사과정), 김명신, 전봉관, 최재경, 곽명숙, 서형범, 정의관, 박희일, 이형석, 김주리, 정영훈, 박성아, 오인석, 전재승, 윤기동, 오창남, 최인화(이상 학사과정).

답사기간

1993.5.6 - 5.8. (2박 3일)

조사 대상 작가 : 이무영, 홍명희

조사 대상 : 충청북도 음성군 및 괴산군 일대

2. 본조사 및 일정

5월 6일 서울 반포 뉴코아 백화점 구관 정문에 집결하여 당일 10시 관광버스편으로 1차 조사 대상지인 음성으로 출발하였다. 오후 1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도착하여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석인리의 이무영 생가를 답사하였다. 여기서 김종욱의 이무영의 문학과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들었다. 오후 4시 읍내리에 있는 이무영 문학비를 답사하고 저녁 8시 김종욱의 「이무영의 삶과 문학」이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난 뒤 교수님과 학생들간에 격의없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읍내리에서 1박.

5월 7일 11시 30분 차편으로 괴산으로 이동하여 홍명희에 대한 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도보로 제월리로 이동하여 홍명희의 생가를 답사하고 현재 생가에 살고있는 오촌조카 홍면씨와 해방전후 홍명희의 괴산에서의 활동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윤세덕씨에게 홍명희와 그에 얽힌 당시의 증언을 들었다. 제월대에서 점심 식사후 쌍곡으로 이동, 저녁 9시 서형범의 발표 「홍명희의 생애와 문학」과 서재길의 발표 「역사소설로서의 『林巨正』」, 그리

고 김진옥의 제월리에서 새로 수집한 홍명희에 대한 자료 발표를 듣고 홍명희와 『林巨正』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였다. 쌍곡에서 1박.

5월 8일 9시 쌍곡에서 괴산으로 이동하여 10시 10분 차로 서울로 귀경하여 현지에서의 답사일정을 마쳤다.

3. 문학 토론회 내용 (지면 관계상 실증적 사실 중심으로 수록한다.)

첫날(5월 6일) 주제발표
李無影의 삶과 문학: 김종욱

생애: 이무영은 1908년 1월 14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속칭 오릿골)에서 이덕여(李德汝)와 인(印)씨 사이의 7남매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본가는 음성 읍내이었지만 1907년 가을 부친 이덕여가 의병들의 시신을 장사지낸 것이 탄로나 어머니가 오릿골로 피난가 있었던 것이다. 1913년 충북 증원군 신니면 용원리로 이사하여 소학교를 다니면서 이무영은 후에 시인이 된 이흠(李洽, 본명 李康洽)과 절친하게 지냈다.

1920년 이무영은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고, 이때부터 문학에 뜻을 두었다. 田山花袋의 소설 『滿園』에서 받은 감명은 그가 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였다. 1925년 휘문고보 4학년을 중퇴하고 일본에 건너가 加藤武雄의 집에서 기숙하면서 4년간 작가수업을 받았다. 그 동안에 장편 『의지없는 청춘』(청조사, 1926.5)과 『폐허의 울음』(청조사,

1927)을 발간함으로써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무영>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다.

1929년 귀국하여 소학교 교원, 출판 잡지사 직원으로 전전하면서 작품을 발표하였으나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1931년 동아일보 희곡현상모집에 당선된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무영은 비로소 문학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극예술연구회>에서 공연되기도 하였다. 이후 「반역자」(비판, 31.11.12), 「흙을 그리는 마음」(신동아, 32.9), 「루바슈카」(신동아, 33.2), 「지축을 돌리는 사람들」(동아일보, 33.8.5-9.22), 「아저씨와 그 여인」(신가정, 33.3-4), 「우심」(중앙, 34.7), 「노래를 잊은 사람」(중앙, 34.11-12), 「취향」(조선일보, 34.12.16-18), 「만보노인」(신동아, 35.3), 「수인의 아내」(신가정, 35.4-5) 등의 역작을 발표하여 작가적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이무영의 농민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1936년 6월 11일 결혼(부인 고일신)하였고,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정간되자 이흠과 함께 『조선문학』을 창간하였다. 1939년 7월 동아일보사를 휴직하고 이흠이 살고 있던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어업 2리(속칭 궁말)로 내려갔다. 여기에서 이무영은 농민과 같이 생활하며 그의 농민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단편 「제일과 제일장」(인문평론, 39.10), 「흙의 노예」(인문평론, 40.4)를 비롯하여 「민권」(인문평론, 40.8), 「안달소전」(조광, 40.10), 「모우지도」(춘추, 42.9), 「귀소」(춘추,

43.1), 「토룡」(국민문학, 43.4) 등을 발표하였다. 장편 「靑瓦の家」(부산일보, 1942)는, 菊池寛이 1939년 제정했던 제 4회 조선예술상 문학부문 수상작이기도 하다.

해방 후에는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 소설론 강의를 하는 한편, 1946년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장편 「삼년」, 「농민」(한성일보, 50.1.1-5.21), 단편 「광장소전」(백민, 46.1), 「일년기」(조선교육, 47.12-49.2), 「산정의 삽화」(문예, 49.11) 등의 단편을 이 시기에 발표하였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해군소령으로 입대, 해군정훈교육을 담당하였고, 1953년 해군정훈감을 거쳐 이듬해 국방부 정훈국장으로서 취임하였다. 장편 「노농」(대구일보, 54.5.10-), 단편 「바다의 대화」(전선문학, 53), 「O형의 인간」(신천지, 53.6) 등을 발표하였다. 1955년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여 자유문학자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단편 「숙경의 경우」(사상계, 55.2), 「시신과의 대화」(문학예술, 57.3) 「백령」(사상계, 57.8-11) 등 주로 도시에서의 애정윤리 문제를 그린 작품을 발표하였다. 1956년 발표한 「농부전초」로 서울시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60년 4월 21일 뇌일혈로 타계하여 문인장으로 성북구 창동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었고, 유고로 「목석부인」 등 2편이 발표되었다. 1974년 신구문화사에서 「이무영대표작전집」이 출간되었고, 1985년에는 음성에 이무영문학비가 건립되었다.

문학의 특징:

1) 아나키즘적 농민소설-「만보노인」을 중심으로

이무영은 1932년 「흙을 그리는 마음」을 발표한 이래 「농부」, 「우심」, 「노래를 잊은 사람」, 「산가」, 「만보노인」 등과 같은 작품을 연달아 발표하여 문단적 지위를 확보한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일제의 자본주의적 경제침략과 저농산물가격정책, 그리고 악덕지주와 고리대금업자에 의한 농민들의 몰락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은 「만보노인」이다.

2) 중농주의적 농민문학--「제일과 제일장」, 「흙의 노예」

1939년 이무영은 동아일보 기자직을 사임하고 경기도 군포 근처의 궁촌이라는 시골로 이사간다. 그로부터 2-3년 동안 이무영은 농민소설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제일과 제일장」과 그 속편인 「흙의 노예」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의 농민소설은 앞 시기의 농민소설과는 달리 가난의 역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품위와 생존의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깨끗한 의지의 농민상을 창조하고 있다. 즉 끝없는 가난 속에서 체념과 절망의 과정을 겪다가 무방향성의 반항으로 내몰리던 이전의 작품경향에서 벗어나 흙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을 통해서 삶을 유지해나가는 인물들을 창조해나가는 것이다.

의의: 그의 소설은 농민들의 계층적 특수성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만보노인」, 「제일과 제일장」, 「흙의 노예」 등, 그의 모든 소설에서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농민들의 땅에 대한 애착과 계층상승욕

구는 카프계 농민소설이나 농촌계몽소설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궁핍화일로에 있는 식민지 조선농민의 현실상과 함께 농민의식의 가능성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는 작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묘사의 진실성과 농민들에 대한 작가의 애정어린 시선에서 비롯하는 것은 부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의 농민소설은 농민소설의 본령에 접근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무영의 작품은 또한 자본주의의 성장에 의해 생겨난 비인간화 경향에 대항하여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유기적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휴머니즘적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노동의 삶과 병들어버린 소비의 삶을 확연히 구분짓는 휴머니즘적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의 휴머니즘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이무영의 소설을 높이 평가할 수 없도록 하는 지점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둘째날(5월 7일) 주제 발표

1) 홍명희의 생애와 문학: 서형범

생애: 淸初의 집안은 풍산 홍씨다. 노론파에 속하는 명문가로 사도세자의 장인이던 홍봉한, 정조 초년 국정을 좌우하던 홍국영, 순조때 문장가이고 좌의정을 지냈던 홍석주 등이 그의 가계

다. 아버지는 홍범식으로 금산군수 재직시 경술국치에 비분강개하여 자결한 인물로 유명하다.

홍명희의 생가는 괴산읍 제월리 고택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태어난 집은 괴산읍 농부리로 되어있는 인산리 고가이다. 선대부터 인산리 고가에 살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부친의 순국과 1919년 홍명희의 투옥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제월리 고가로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홍명희의 어머니는 은진 송씨로 그가 세 살 때 죽었다. 홍명희는 증조모의 품에서 자랐으며, 어릴때부터 한학을 공부했다. 비상한 기억력과 뛰어난 문재를 보였으며, 11세 때부터 중국소설들을 탐독했다. 그는 13세 때 참판 민영만의 딸과 혼인하여 16세 때 장남 기문을 보았다.

1901년 한학을 그만두고 상경하여 증교의숙에 입학했다. 1905년 졸업 후 동경유학을 떠났다. 대성중학교에 편입하기 전 동경상업학교 예과 2년에 편입했다가 이듬해 대성학교 3년에 편입했다. 첫학기를 제외하고는 결석이 잦고 학업을 통한시 했는데, 석차는 항상 1,2등을 다했다고 한다.

동경유학시절 호암·육당·춘원 등과 교유하게 되는데 淸初는 항상 이들을 선도하는 입장이었다. 이들과 어울리며 사상에 관한 토론도 하고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교유의 폭을 넓혔다.

귀국 후 『소년』지에 기고 하면서 나라의 일을 근심하던 그에게 아버지의 순국은 일대 사건이었다. 1910년 8월

29일 홍범식은 향년 40세를 일기로 비분을 참지 못하여 순국하고 만다. 장남인 그에게 남기는 유언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조선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잃은 나라를 기어이 찾아야 한다.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먼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는 말을 남긴다. 아버지의 죽음과 나라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던 그는 아버지의 유서를 액자에 넣어 자신의 책상머리에 놓아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였다고 한다. 그는 1912년 중국을 향한다.

1913년 봄 상해에 도착하여 독립운동 조직인 동계사에 가입, 상해에 본거지를 마련하고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의 또 하나의 거점이던 남경을 가끔 왕래하며 동지들과 더불어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1914년 11월 홍명회는 상해를 떠나 남경으로 향한다. 1917년 12월 상해로 올 때까지 3년 가량을 싱가포르에서 지낸다. 중국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면서 인식을 넓히던 그는 1917년 12월 11일 상해를 향한다. 3년 가량의 싱가포르 생활은 그의 안목을 한층 넓혀주었으며, 민족해방 운동가로서는 물론이고 문인으로서도 그의 내면적 성장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원택 등과 교류하며 중국에 있던 그는 아우 홍성회를 봉천에서 만나 1918년 7월 19일 귀국길에 오른다.

귀국후에도 장남의 교육에 힘쓰는 한편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정력적인 활동을 펴면서, 기미년 이후 도래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활발한 사회

운동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林巨正』에 관한 서지: 이 작품의 표제는 연재 초기에는 『林巨正傳』이었으나, 1937년 12월 12일, 중단되었던 연재를 계속하면서 『林巨正』으로 바뀌었다. 畵初는 이 작품을 1928.11.21~1929.12.26까지 302회분과 1932.12.1~1934.9.4까지 541회분, 1937.12.12~1939.3.11까지 228회분은 『조선일보』에 연재하고, 1940.10의 1회분은 『조광』에 연재하였다. 원고지 13,000장분량의 장편이며, 10분의 1 가량이 미완으로 되어있는 장편으로, 단행본으로 출판될 때에는 의형제편과 화적편의 일부가 먼저였고, 봉단편·피장편·양반편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2) 『林巨正』 研究史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재길

(생략)

4. 채집 자료

조사일시 : 1993년 5월 7일

조사장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제보자 : 윤세덕(尹世德, 60세)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1구 거주

조사내용 :

1) 제보자는 괴산군 제월리에서 해방 이전부터(제보자 나이 8세 경) 거주해 오면서, 홍명회의 가계에 관한 정보와 특히 해방무렵 제월리에 내려와 있

던 홍명회에 관한 몇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었음. 제보자 스스로 자신이 중앙정보부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홍벽초는 물론, 그 가계에 관한 상당히 정확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 그러나, 정보부의 정석요원이라기보다는 제월리 마을을 감시하는 정보원 역할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됨.

2) 제보자는 세간에 알려져 있고 출판된 홍명회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엉터리'라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3) 제보자는 해방무렵 홍벽초에게 직접 한문(동몽선습)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말함. 정기적으로 벽초에게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고, 서당에 가면 서당 훈장이 학동들을 이끌고 벽초를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한문을 배우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4) 제보자가 기억에 의거해 밝히고 있는 홍명회의 가계에 관한 증언은 다 음과 같음. 대체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과 일치함. 제보자는 자신이 중앙정보부에서 일하면서 홍명회에 관한 자세한 자료화일을 본 적이 있다고 하며, 그것이 지금은 정보과(경찰을 일컫는 듯)로 넘어갔다고 말함.

조부 - 홍승묵

부 - 홍범식(한일합방 당시 목을 매어 자결, 제월리 선산에 묘가 있음)
홍명회

자 - 홍기문(국어학자, 북한의 국제의원연맹 대표를 지냄, 사망)

쌍둥이 딸(이 중 한 명을 김일성의 첩으로 주었다는 세간의 이야기는 전혀 허구일 것이라고 말함)

손 - 홍석중(북한에서 현재도 활동

중인 소설가)

이복동생 - 홍성희(계모 조정식의 소생, 모스크바 대학 졸업, 러시아 여자와 결혼, 공산주의자로 월북)

조카 - 홍기백(홍성희의 첫째 부인 소생, 북한에서 현재 살아 있다면 61세가 되었을 것이며, 제보자와 동년배로서 학교에도 같이 다닌 것으로 기억, 러시아에서 살다 온 까닭에 우리말이 서투르고 해서 동네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함)

5) 생가로 알려져 있는 제월리 가옥에 대한 증언 - 본래 제월리는 홍씨 가문의 마을이 아니라 벽초의 외가(평산신씨) 마을이었다. 홍씨네가 득세하면서 외가 소유의 땅과 산을 빼앗다시피한 것이 지금의 선산이다. 이 일로 홍씨네와 외가의 사이가 극히 나빠서, 이 일대에 외가쪽 일가가 몇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벽초에 대해선 전혀 모르거나 이야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선산을 지키는 산지기의 집으로 지은 것이 현재 벽초의 생가로 알려져 있는 집이다. 이 집은 세도가였던 김병기의 집을 뜯어 옮겨 지은 것이다. 벽초의 본가는 서울 불광동에 있었기 때문에 벽초도 그곳에서 출생했을 것이며, 제월리 산지기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그 집에는 홍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사람은 벽초의 거의 유일한 혈육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고, 스스로도 벽초가 오촌당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이다. 그는 벽초와 전혀 관계없는 서출 가계로 서울에서 살다가 뚜렷하게 살 방도가 없자 홍씨가문과의 연고를 빌미로 산지기집에

찾아들어 살고 있을 뿐이다. 아마 벽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을 것이다.

6) 홍벽초와 관계된 몇 가지 일화들에 관한 증언

* 벽초는 제월리 마을에서 머무르던 해방 전후의 시기에 주로 낚시를 즐겼다. 당시로서는 보기도문 고급 낚시대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되며,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머칠만 기다리면 다 자랄텐데 그때 잡아도 된다”며 놓아주곤 했다. 제보자 또래의 조무래기들이 돌을 가져다 벽초의 낚시터를 꾸미고, 잡은 물고기는 돌구이를 하여 나누어 먹었다.

* 벽초는 뒷머리가 조금 남아있을 뿐 머리가 온통 반들거릴 정도의 대머리였다. 제보자 자신이 그 번들거리는 머리를 보고 “요강 대가리”라는 별명을 지어 놀리기도 했다.

* 벽초가 월북한 후 군인들이 와서 군용지프로 벽초의 책을 실어갔다. 책이 꽤 많아서 대여섯 대의 차가 동원되었는데, 아마 트럭 두어 대 분은 되었을 것이다. 마을에 벽초가 남긴 글씨, 현판 등이 많았는데, 그들도 당시 함께 거두어 갔고, 남아 있던 것도 오랫동안 감추어지거나 버려져서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제보자의 집에도 현판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 벽초가 아마 제월리 거주 당시에 글을 썼을 범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모습은 없다.

7) 제보내용에 대한 평가

* 제보자는 벽초와 그 친족들에 관하여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 그 대부분은 제보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기보다는 정보부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것으로 짐작됨. 또한 최근에 몇 개 대학의 답사팀을 만나고 안내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경험에서 역으로 얻게 된 정보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제보자는 학계와 세간에 알려져 있는 벽초에 관한 사실들에 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음. 제보자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제월리가 벽초의 탄생지가 아니라는 점과, 홍면씨가 벽초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임.

* 제보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더 흥미로운 것은 제보자가 어렸을 때 직접 겪은 홍명희의 모습에 관한 기억일 것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내지 못함.

5. 전체 평가 및 해단식

5월 13일 16시 1-203에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을 가짐. 여기서 석사과정 김건우가 현대작가반의 활동 상황을 보고했다.

방언반 답사 보고서

방언반은 1992.5.5(수)부터 5.8(토)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방언을 조사하였다. 참가자 19명이 다섯 조로 나누어 가평군의 세 주요 지역(가평읍, 설악면, 하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의 조편성과 조사지점 및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조편성

1조 : 최명옥(지도교수), 곽용주(석1), 박기영(석1), 이진호(학3)

2조 : 배주채(조교), 김진형(석1), 안은숙(석1), 이승희(학4)

3조 : 구분관(박수료), 정인호(석1), 석주연(석1), 박재연(학2)

4조 : 이혁화(석2), 이선웅(석1), 양정원(학2)

5조 : 유필재(석2), 이선아(석1), 황선엽(석1), 이병기(학3)

조사지점 및 제보자

1조 : 가평읍 마장리,

崔圭鉉(남, 65세)

2조 : 설악면 창의리,

李萬福(남, 74세) : 1.벼 - 192.

배

李起碩(남, 74세) : 193.고름 - 267.뽕

李淑鉉(남, 72세) : 268.하나 - 400.벌

3조 : 설악면 신천리,

李起福(남, 78세) : 1.벼 - 380.하니바람

유영석(남, 79세) : 381.테 - 400.벌

4조 : 하면 현리,

왕익균(남, 65세)

5조 : 하면 현리,

손광진(남, 59세)

질문지는 이번 답사를 위해 따로 작성하였는데 조사항목은 어휘 420항목, 모음체계 20항목, 동사·형용사 30항목, 경어법어미 12항목의 총 482항목이었다. 동사·형용사와 경어법어미는 조에 따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문헌반 학술답사 보고서

1. 답사 지역 및 조편성

문헌반에서는 1992.5.6(목)부터 5.8(토)까지 2박 3일간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답사활동을 하였다. 답사에 앞서 5.3(월) 국문과 전체 발대식이 끝난 후에 민병수 선생님을 모시고 준비상황을 간략히 확인하였다. 문헌반의 구성인원은 아래와 같다.

- * 지도교수 : 민병수 선생님
- * 강석중, 구본기 (박사과정), 김납기, 정대진, 김동준 (석사과정).

2. 활동내용

1993.5.6(목). 10:30분 '만남의 광장'에서 승용차편으로 출발하여 17:00경에 장성 白羊寺에 도착하였다. 백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18교구의 본사로서, 632년(무왕 33)에 白巖山 白羊寺로 창건되었다가, 1034년(덕종 3)에 淨土寺로 중창되었으며, 1350년(충정왕 2)에 삼창되었다. 현재 전하는 건물은 1594년(선조 27)에 중건된 것이다. 일행은 백양사에서 해강 김용진씨의 글씨를 비롯하여 몇 편의懸板 記文을 감상할 수 있었다. 19:00에 장성읍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한 뒤, 군청과 문화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5.7(금). 10:00에 장성군청을 방문하여 邊凡錫氏를 소개받고, 다시 장성문화원으로 가서 안내를 부탁하였다. 이

곳에서 李炳植氏를 만나 장성군 일대의 문화재원을 간략히 확인하고, 金麟厚를 배양하고 있는 筆巖書院의 소장 도서목록을 얻었다. 변법석 씨와 이병식 씨의 인도로 11:00경에 靈峰高敬命 묘에 참배하였다. 묘지 입구에 세워진 神道碑銘을 통해 墓表의 양식을 민병수 선생님께 지도받을 수 있었으며, 묘 주위에 있는 묘석과 비명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오후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한 뒤, 일행은 필암서원으로 향했다. 필암서원은 김인후의 도학을 추승하기 위해 1590년(선조 23)에 처음 세워진 건물로, 1597년 정유 재란을 만나 소실되었다가 1624년 복원되었으며, 1662년(현종 3)에 '筆巖'이라는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672년에 이전된 것이다. 14:30분 경에 필암서원에 도착하여 여러 곳을 둘러보고 서원의 한 양식을 체득할 수 있었다. 현판에 걸린 글들과 글씨체를 민병수 선생님께 전해 듣기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필암서원에 소장된 책들은 이미 서울에 있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열람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몇 차례 도둑이 들어 보완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동행했던 이병직 씨가 알려 주었다. 일행은 필암서원 내의 藏版閣에서 雅頌, 筆巖

書院지(言志) 등을 비롯한 수십종의 책을 열람할 수 있었다. 자료로서의 가치는 크게 인정될 만한 책은 없었으나, 그 중에는 1920-1930년대에 출판된 책이 있어서 초기 석판본의 양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16:30분 이후에는 鳳巖書院, 孤山書院, 松溪書院 등을 차례로 구경하였으며, 20:00경에 숙소로 돌아왔다.

5.8(토)에는 장성향교를 구경한 뒤, 소장서가 많기로 이름난 邊時淵翁의 덕에 들렀다. 그곳에서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한 것이 답사의 주요한 동기였지만,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변옹의 아들이 이미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버린 뒤였다. 변옹에게서 소장된 책을 소개받고, 그곳에 남아 있는 책들을 소개받았지만, 소기의 성과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구분기 학형에 의해 발견된 踏山歌와 滿江紅은 국문학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답산가는 53葉으로된 국한문 혼용의 도화가사로서, 예산에서 강진에 이르는 호남 일대의 畵邑과 景勝地를 유람하면서 풍속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 가사이다. 이미 학계에 보고된 바 있기는 하지만 체제가 약간 다른 것으로 보

아 이본의 일종이라 생각된다. 만강홍은 李鐘麟이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문소설이었다. 소장서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순수 한문으로 글을 지어 책을 만들고 있는 변옹에게서 고서를 만드는 법을 꼼꼼히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13:00경에 식사를 하고 서울로 떠났다.

3. 평가회 및 해단식

* 자체 평가회

5.8(토) 장성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들며 평가회를 가졌는데, 사전준비의 부실함이 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필암서원의 소장목록을 얻을 수 있었던 점, 장판각에서 석판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고경명 묘의 참배 과정에서 비명의 양식을 체험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변시연 응의 덕에서 답산가와 만강홍을 복사하고 고서 만드는 모습을 실제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답사의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1993. 5. 13(목)에 전체 답사 인원이 국문과 강의실에 모여 해단식을 가졌다. 문헌반은 김동준(석사과정)군이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